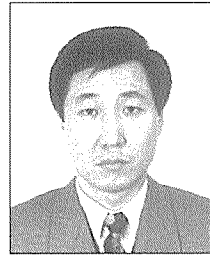


2000년 정유업계 동향



이 동 주
 < SK(주) 정책협력팀 부장 >

1. 들어가며

2000년도는 정유업계에 있어서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과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것은 물론 석유산업 자유화 과정에서 비롯된 국내 석유산업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한꺼번에 표출되었던 한해였다.

특히 99년 3월 OPEC의 감산결정으로 야기된 고유가 지속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가격 인상과 이의 적정성 논란, 공급과잉으로 인한 덤핑판매문제, 군납 및 소매 시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상표표시제에 대한 업계간 갈등, 전자상거래의 도입 등 석유산업 정책 전반에 대하여 시장참여자 뿐만 아니라 언론, 국회, NGO까지 이해당사자간의 각자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제시는 없는 과도기적 혼란을 경험했던 한해였다.

2. 2000년 정유업계 동향

가. 2000년 석유산업 환경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여 1996년 이후 97%를 상회하고 있으며, 물량기준으로 에너지의 석유(원유 및 석유제품, 이하같음)의존도는 1995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0년 기준 52%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석유의존도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석유소비도 국제유가 변동에 대해 비탄력적이고 석유소비의 효율성도 낮아 국제유가의

상승시 이를 자체 흡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석유수입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백만TOE)

| | 1970 | 1980 | 1990 | 1995 | 1999 | 2000 |
|---------------------|------|------|------|------|------|------|
| 에너지 수입의존도(%) | 47.5 | 73.5 | 87.9 | 96.8 | 97.2 | 97.3 |
| 에너지의 석유의존도(%) | 47.2 | 61.1 | 53.8 | 62.5 | 53.6 | 52.0 |
| 석유수입의 에너지수입증 비중(%) | * | 91.7 | 82.4 | 81.8 | 81.1 | 83.5 |
| 석유수입의 총수입증 비중(%) | * | 27.1 | 12.9 | 11.3 | 15.4 | 19.6 |
| 석유수입의 환 명목 GDP비율(%) | * | 9.9 | 3.6 | 3.1 | 4.5 | 6.9 |

특히 걸프전 이후 장기간 배럴당 15 ~ 20달러 내에서 머물던 국제유가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석유수요가 격감함에 따라 급락세로 돌아서 1998년 12월 10.4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1999년 3월 OPEC의 3차감산 합의 및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로 오름세를 지속하여 2000년 9월에는 32.1달러에 달해 1년 9개월만에 3.1배 상승하는 고유가 시대를 경험한 한해였다.

【국제유가 추이】

(단위 : \$/B, Dubai)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평균 |
|-------|-------|-------|-------|-------|-------|
| 1999년 | 10.98 | 15.30 | 19.76 | 22.76 | 17.20 |
| 2000년 | 24.41 | 25.07 | 27.71 | 27.51 | 26.18 |

이러한 1999년, 2000년도의 고유가는 석유 제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급격히 둔화시켜 2000년 2/4분기중 8.7% 증가에서 3/4분기 및 4/4분기중 3% 및 0.6% 증가에 머물러 2000년 국내 석유수요는 '97년 수준의 80% 수준에 불과하였다.

【최근 석유제품의 국내소비】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 1999 | 2000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
| 국내소비 | 7.4 | 3.2 | 4.1 | 8.7 | 3.0 | 0.6 |

특히, 최근에는 심야전력, LNG, LPG 등 경쟁연료의 가격경쟁력 우위로 인해 석유제품의 경쟁연료로의 연료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휘발유의 경우 높은 세금비중(67%)으로 인해 수요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내 석유제품 수요 추이】

(단위:천B)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447,772 | 477,039 | 482,266 | 350,041 | 383,144 | 387,040 |

※ Gasoline, Kero, Diessel, B-C유 기준

2000년 석유제품의 국내소비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742,426천배럴이었으며, 부문별로는 수송·발전 용은 증가한 반면, 산업은 소폭 증가, 가정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은 산업경기 및 설비투자 둔화로 B-C유 등 연료소비는 4.3% 감소하였으나, 석유화학 산업용 나프타 등 비연료유 소비가 늘어나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가정산업부문은 난방유 소비절약과 LNG·심야전력 이용확대로 4.3%감소, 수송부문은 휘발유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LPG차량보급으로 5.0%증가, 발전부문은 발전용 B-C유 소비증가로 5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소비실적】

(단위 : 천B, %)

| 구분 | 산업 | 수송 | 가정산업 | 발전 | 공공기타 | 가스제조 | 합계 |
|------|---------|---------|---------|--------|-------|--------|---------|
| 1999 | 355,723 | 215,885 | 120,809 | 23,739 | 8,984 | 4,518 | 719,658 |
| (증감) | (2.9) | (9.7) | (18.2) | (9.0) | (4.7) | (8.0) | (7.4) |
| 2000 | 361,747 | 216,242 | 115,680 | 37,454 | 8,125 | 3,175 | 742,426 |
| (증감) | (1.7) | (5.0) | (4.2) | (57.8) | (9.5) | (29.7) | (3.2) |

※ () 내는 전년대비 증감을

유종별로는 휘발유 및 등유소비가 전년대비 각각 2.3%, 9.2% 감소한 반면, LPG·B-C유, 나프타 소비가 전년대비 각각 10.0%, 7.9%, 4.5%증가하였다.

【유종별 소비실적】

(단위 : 천B, %)

| 1999 | 63,879 | 76,928 | 126,072 | 116,272 | 18,376 | 218,908 | 77,007 | 719,658 |
|------|--------|--------|---------|---------|--------|---------|--------|---------|
| (증감) | (4.6) | (25.2) | (4.7) | (8.5) | (6.3) | (2.4) | (13.3) | (7.4) |
| 2000 | 62,382 | 69,844 | 129,428 | 125,455 | 18,231 | 228,852 | 84,683 | 742,426 |
| (증감) | (Δ2.3) | (Δ9.2) | (2.7) | (7.9) | (0.8) | (4.5) | (10.0) | (3.2) |

※ () 내는 전년대비 증감을

석유제품의 생산은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소비 증가 및 석유제품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1.7%증가한 927,020천배럴이었으며, LPG는 소비증가로 생산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등유·B-C유는 감소하였다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단위 : 천B, %)

| 1999 | 75,159 | 90,501 | 218,670 | 235,451 | 164,447 | 30,229 | 911,086 |
|------|--------|--------|---------|---------|---------|--------|---------|
| (증감) | (Δ1.1) | (44.8) | (Δ5.9) | (14.5) | (6.9) | (9.9) | (5.4) |
| 2000 | 76,202 | 88,120 | 227,805 | 225,262 | 166,74 | 34,910 | 927,020 |
| (증감) | (1.4) | (Δ2.6) | (4.2) | (Δ4.3) | (1.4) | (15.5) | (1.7) |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2.9%증가한 306,725천 배럴로 석유소비가 감소한 휘발유와 등유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210,178천배럴로 특히 발전용 B-C유와 수입사의 석유제품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단위 : 천B, %)

| 1999 | 11,274 | 14,986 | 88,353 | 82,374 | 34,334 | 46,218 | 298,181 |
|------|---------|---------|---------|---------|---------|--------|---------|
| (증감) | (Δ26.0) | (140.1) | (Δ19.1) | (36.7) | (Δ13.6) | (3.1) | (1.8) |
| 2000 | 14,869 | 19,874 | 96,676 | 72,157 | 37,675 | 48,538 | 306,725 |
| (증감) | (31.9) | (32.6) | (9.4) | (Δ12.4) | (9.7) | (5.0) | (2.9) |

석유제품의 유통측면에서는 2000년도 일반대리점 수는 209개로 99년도의 132개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규제완화와 유통질서 저해행위 단속으로 인한 대형 일반판매소가 일반대리점으로 전환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대리점 업소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 94 | 95 | 96 | 97 | 98 | 99 | 2000 |
|------|-----|-----|-----|-----|-----|-----|------|
| 7개도시 | 59 | 59 | 60 | 64 | 66 | 79 | 113 |
| 도지역 | 52 | 50 | 49 | 41 | 43 | 53 | 96 |
| 계 | 111 | 109 | 109 | 105 | 109 | 132 | 209 |

이와함께 2000년도에 영업중인 주유소는 10,549개 로 지난해 10,390개 보다 1.5 % 소폭 증가하였는 바, 이는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거의 포화상태로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영업주유소 현황】

(단위 : 개)

| 구분 | 94 | 95 | 96 | 97 | 98 | 99 | 2000 |
|---------------|--------------|-----------------|----------------|----------------|-----------------|-----------------|-----------------|
| 등록주유소 | 8,971 | 10,597 | 11,039 | 10,959 | 10,803 | 10,905 | 10,955 |
| 영업주유소 (증감) | 7,296 (-) | 8,371 (14.7) | 9,130 (9.1) | 9,928 (8.7) | 10,163 (2.4) | 10,390 (2.2) | 10,549 (1.5) |

이외에 특이할 만한 점은 2000년도에 석유수입사의 수입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석유제품 총수입중 수입판 매사의 비중은 99년 1.4%에서 2000년 2.9 %로 확대되 었으며, 수입판매사의 내수판매비중도 99년 0.3 %수준 에서 2000년 0.8 %수준으로 확대되어, 휘발유·등 유·경유의 내수점유율은 99년 0.7에서 2000년 2.0% 로 급증했다.

【수입판매사의 내수판매 추이】

(단위 : 천B, %)

| 구분 | 휘발유 | 등유 | 경유 | B-C유 | 합계 |
|------|-------|-------|-------|-------|-------|
| 1999 | 355 | 914 | 694 | 461 | 2,424 |
| (증감) | (0.6) | (1.2) | (0.6) | (0.4) | (0.3) |
| 2000 | 725 | 2,137 | 2,280 | 945 | 6,089 |
| (증감) | (1.2) | (3.1) | (1.7) | (0.8) | (0.8) |

※ 내수비중은 총판매실적에서 수입사의 판매량 비교

나. 2000년 석유업계 애로사항

1)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정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 등 4개 용역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에너지가격구조개 편안을 수립하고,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 처의 검토를 거쳐 12월 국회에 상정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96년 12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되어 LPG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LPG사용자들의 반발이 예 상보다 커짐에 따른 것으로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LPG 뿐만아니라 석유류 전 제품에 대한 세계개편을 통하여 환경오염, 교통혼잡, 에너지안보 등의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차원에서 추 진되었다.

IMF로 세수가 대폭 줄어들기 이전인 1997년 총 국세 약 70조원중에서 에너지부문에서 걷어들인 세수는 약 14 %인 10조원에 이른다. 이 10조원의 세수 중에서 무 려 90 %가 석유류로부터 걷어들인 세수이며, 또 석유 류 세수중 60%는 휘발유로부터 걷어들인 것임을 감안 할 때 국내 에너지체계가 과도하게 석유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휘발유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석유류를 중심으로 한 조세체계는 휘발유에 대 한 과도한 조세집중과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 경유, 부 탄간의 가격왜곡, 산업용 연료인 중유와 LNG간의 과 세 형평성 결여와 특히 세수증대에만 중점을 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등 현행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정부가 추진한 석유류 가격구조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항목으로 수송용 유류간 가격구조개 편을 들 수 있다. 수송용 유류간의 세율격차는 그동안 너무 커져, 국내 수송용 에너지소비의 왜곡을 가져 왔 는 바, 특히 수송용 LPG가격의 경우 휘발유의 26 %에 불과해 LPG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

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수송용 유류간 가격구조 개편방향을 휘발유보다 환경오염도가 높은 경유의 가격을 2006년 7월까지 휘발유가격의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송용 LPG의 가격은 같은 기간동안 휘발유의 6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추진하였는 바, 왜곡된 가격구조를 시정한다는 원칙과 방침이 적절히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석유류 가격구조개편의 주요내용중 두번째 항목은 중유에 대한 특소세 신규부과를 들 수 있다. 중유는 공해유발효과가 크고 경쟁에너지인 LNG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2006년 7월까지 20원/ℓ 의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석유제품의 연산품적 특징으로 40%내외의 중유 생산이 불가피하고, 중유분해시설은 그 투자비가 막대하고 현 유가수준에서 투자의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내에 중유의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중유에서 LNG로의 수요이전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끝으로 세번째 항목으로 석유화학사의 부생연료유에 대한 과세를 들 수 있다. 부생연료유는 석유화학사에서 나프타를 분리·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Heavy-End, C9+등이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산업체, 호텔, 목욕탕 등 직매처에 연료유로 판매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조세의 중립성 차원에서 이에 대해 특소세 및 판매부과금을 과세·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부생연료유에 대한 과세규모가 등유세액의 70%수준에 머물러 해당연료유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훼손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유종과 동등한 수준의 과세가 향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가정용 유류인 등유에 대하여, 단순히 혼·전용 및 동절기 등유수입방지 차원에서 등유의 가격을 현행 100원/ℓ 수준에서 2006년 7월까지 300원/ℓ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 바, 이

는 소비자의 가계부담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으로 대폭적인 세금인상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간의 세금차등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서민연료인 보일러등유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국내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발전방향

2000년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발전방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동건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정부도 현행 석유제품 유통관련 제반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가장 많이 공론화된 문제는 상표표시제로 현행제도인 단수상표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향후 복수상표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석유제품 유통시장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

또한 향후 언제쯤 상표표시제의 법적 규제를 폐지하고 사적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법적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개진과 검토가 이루어졌다.

두번째 문제로 소비자 효익증대에 효과적인 석유유통구조의 수직계열화 기조를 지켜 나가는 것과 석유사업자간 수평거래 허용으로 유통경로를 다원화해 나가는 것, 아니면 이 두가지방안을 적절히 절충할 것이가 등도 해당 석유사업자간의 이해가 다양하여 의견 또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이외에 2000년도에 들어와 논란이 된 것중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시장 개설은 또다른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2000년 4월부터 페트로마켓, 오일비드, 넷오일, 사이버페트로, 엔페트로, 오일팩스, 예스오일 등 다양한 석유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생겨나 기존의 유통업체와의 경쟁이 나섰으나, 2000년말까지의 거래실적은 여러가지 제약조건과 제반여건이 미흡하여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의 개설은 바람직한 것으로 2001년이후에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내 유가 적정성 논란

'99년 국정감사 이후 석유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수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전가하여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99년초 10\$/배럴이던 국제원유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2000년 하반기에는 무려 33\$/배럴(Dubai유 기준)수준까지 치솟음에 따라 국내유가인상이 국내 정유사 및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정유사의 고정비를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 가 하는 것으로 국내유가는 '97년 유가자유화 훨씬 이전부터 소비지정제주의 특성에 의해 국내정유사의 고정비를 내수시장에 배부하여 왔으나, '97년 이후 국내 석유제품수요의 감소 등으로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한계시장인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과 국내유가간의 차이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참고로 국내 정유5사의 2000년도 당기순이익은 △2,194억원으로 국내 제조업 매출액이익율(평균) 1.8%에도 못미치는 △0.5%를 기록하였다.

4)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

2000년 현재 원유 및 석유제품 공히 기본세율 5%가 부과되고 있으나, '83년 5월부터 '86년 12월말까지 석유제품에 대한 차등관세가 적용되었던 적이 있다.(휘발유, 등유, 아스팔트 : 10%)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석유수요 급증하고 국내 생산공급 능력이 부족하여 대량의 석유제품수입이 불

가피함에 따라 국내물가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제품관세를 인하하여 같은 기본 세율 5%가 석유제품에 부과되어 왔다.

과거 국내 석유제품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입량이 급증할 때와 현재와 같이 국내 석유제품생산능력과 기술력의 증대로 석유제품 순수출국으로 변모하여 국제적으로 외국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단계로 성장한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에너지의 수급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차등관세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원유수입시 무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제품에는 원유대비 최고 11배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차등관세 검토에 매우 큰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2001년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원유관세율보다 2% 높은 7%로 상향 조정한 바, 이는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 및 인접국에서 소비지정제주의 기초하에서 기 실시중인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율 적정화에 한발짝 다가서게 된 것으로 향후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율차이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5) 0.3% 증유의 공급확대

황합량 0.3% 증유의 공급은 환경부고시 제 99-192호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 2001년 7월 1일부터 서울, 인천 등 전국14개지역에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2년 7월부터는 12개지역, 2003년 7월부터는 4개지역이 추가되어 총 30개지역에 0.3% 증유를 공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0.3% 증유를 공급하는 것은 현재의 탈황설비가 0.5%수준의 증유를 생산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초심도 탈황시설 설치를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동남아 및 아프리카 일부지역에서 사용하는 초저황 원유를 도입해야 하며, 고가의 경유를 증유에 배합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국내 대기질 농도중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이미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기준의 하한치인 0.015 ppm을 달성한 것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증류 황함량의 강화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연료의 황함량을 규제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환경규제는 규제의 효용성과 함께 비용 경제적인 측면과 배출규제 측면에서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지역의 선정기준에도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지역 경제적인 문제 및 산업 경쟁력의 형평성 측면 등 환경 외적인 요소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2000년 국내 정유업계 경영실적

2000년도 국내 정유 5사의 석유사업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42.7% 증가한 40조 2,286억원을 기록하였으나, 당기순이익(세전)은 99년의 8,538억원보다 무려 9,354억원이 감소한 2,1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91년 이후 10년만에 최대적자를 기록하였다.

석유소비가 전년대비 1%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큰 폭의 매출액 증가는 연초부터 시작된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바 크며, 매출액 성장과 대조되는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외화부채가 많은 정유업계 특성상 2000년말 급등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정유업계의 매출액 순이익율은 $\Delta 0.5\%$ 로 전년대비 2.8% 하락하였으며, 자기자본 순이익율 또한 전년대비 7.8% 하락한 $\Delta 1.9\%$ 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 5대 정유회사의 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인 7.8%보다 낮고, 국내 12월 결산상장법인 제조업체의 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인 1.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유산업의 특성상 높게 유지되어 오던 부채비

율은 99년 이후 200%이하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1999년도에 비해 16% 증가한 185%를 기록하고 있다.

4. 끝내며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2000년도는 정유업계로서는 매우 힘든 한해였다. 그러나 2000년도를 지내오면서 국내 정유업계는 또한 많은 교훈도 함께 얻을 수 있었던 한해였다.

2001년에는 2000년도에 진행되어 왔던 많은 사안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초로 관련제도의 변경과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인바, 새로운 제도의 무리없는 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제도의 개혁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1년도는 가격자유화 및 석유산업개방화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로 접어들 것인 바, 정유사와 수입업자간, 국내 정유사간의 가격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상표표시제 및 전자상거래시장 등과 관련한 유통시장의 변혁도 가일층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2001년 한해도 2000년보다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 하게 될 것이나, 국내 석유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항상 지켜져야 할 불변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머지않아 국내 정유사도 외국의 메이저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된다고 볼 때, 정유업계도 경영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며, 부대사업의 활성화 및 사업영역의 다각화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정유업계 직원들의 지혜가 과거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때라 생각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전한 경쟁의 룰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